

# 주부의 인적자원개발과 국가지원체계

김선미\*(광주대 가족복지전공), 송혜림(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과), 이승미(우석대 가족복지전공)

## I. 서론: 연구의 의의

본 연구논문은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 독특하게 대규모로 존재하여 한 편으로는 노동력의 세대적·일상적 재생산을 맡으면서 또 스스로 저임금노동력의 풀(pool)로서 기능하고, 다른 한 편으로는 대규모소비사회의 기구요 불충분한 사회복지제도의 완충자역할을 해 온 주부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. 주부의 자리가 사적인 부문에 고립되어 있으므로 해서 그 인적자원이 저개발·저활용되는 기제를 조명하고, 그 동안의 국가정책 역시 주부를 국가발전의 보조자요 기층의 희생자로 간주해 오므로써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지못하게 했던 관점을 돌이켜서 주부인적자원을 주체의 관점에서 보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촉진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.

## II. 연구방법

전업주부생활과 취업활동 및 자원활동의 조합에 따라 전업주부생활계속 또는 자원활동과 병행, 신규취업이나 재취업으로 취업활동지속, 취업단절 후 전업주부생활로 전환 또는 자원활동과 병행 등 기혼여성의 통과경로의 경우의 수에 따라 주부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측면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전업주부활동과 기혼여성취업지원정책 그리고 자원활동영역에서 국가정책의 현황을 검토하며 해외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연구문헌을 토대로 하여 대안을 도출한다.

## III. 결과 및 결론

가정과 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제이데올로기나 가정성이데올로기, 여성노동시장에서의 차별, 주부인적자원을 국가의 사회복지체계에 동원가능한 무임노동력의 풀(pool)로 보는 관점 등이 주부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경로를 선택하게 하는데 큰 장애물로 규정되며, 그 동안 여성으로 주부만들기의 중요한 역할을 해 온 학교교육에서 향후 양성평등의식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,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내 활용방안 및 창업지원책 그리고 자원활동영역의 성별화철폐 및 직업훈련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한다. 전업주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다양한 여성사회교육기관들을 통하여 지식정보화사회에 발맞출 수 있는 가정경영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그 수단으로서 정부측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는 정책대안도 제시된다. 그리고 경로의 순행을 위한 연결체계와 사회적 인프라에 대해서도 논의된다.